

# '중복'에 서울 한낮 33도 무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송고시간 | 2022-07-26 08:35



이재영 기자  
기자 페이지

1026  
온도당량

자외선이란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뜻하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UV-A, UV-B, UV-C로 나눌 수 있으며 일상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 자외선 종류에 따라 탈모, 노화, 피부암, 백내장, 광각막염, 황반변성 등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여름철 자외선 지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높기 때문에 피서 등의 야외활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 2021년 자외선 지수의 흐름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2022년 여름철 자외선 지수를 예측해 볼 것이다.

자외선 지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사전에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여 자외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고 자외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의 구축되어 있던 자외선 지수 예측 모델의 한계점과 이번에 구축하는 모델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